

연구논문

1920년대 ‘정사(情死)’ 사건의 상품화 전략과 재현의 윤리

딱지본 대중소설 『문기화』와 실존 모델의 후일담을
중심으로

배정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교수, 국어국문학 전공

baejs@yonsei.ac.kr

I. 머리말

II. 딱지본 ‘정사’ 소설의 계보와 『문기화』의 서사 전략

III. 서사적 재현의 거리와 은폐된 폭력성

IV. 사회적 낙인과 실존적 파멸

V. 맺음말

I. 머리말

1925년 7월, 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본처의 질투로 아편을 먹고 자살했다는 어느 기생의 죽음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화계사 승방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안겨 목숨을 끊었다는 기생 문기화(文琦花)의 자살 사건은 얼마 전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강명화의 ‘정사(情死)’를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문기화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본처가 음독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다. 그녀가 당시 보통학교 교사로서 지식인 사회의 주목을 받던 재원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비극을 실명 그대로 옮겨 낸 소설 『문기화』(부업세계사, 1925)가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자유연애’는 새롭게 형성된 근대적 주체가 전통적 질서와 충돌하며 발생한 문제적 국면이었다. 전래의 봉건적 가족제도와 충돌하며 분출된 연애의 에너지는 신분과 가문, 조혼 풍습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빈번히 좌절되었고, 그 파열음은 ‘정사(情死)’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되곤 했다.¹ 사랑의 숭고함을 증명하는 제의적 행위로 미화된 이 비극적 죽음들은 3·1운동 이후 비약적으로 팽창한 언론·출판 자본에 의해 ‘서사적 상품’으로 포착되었다. 특히, 딱지본 대중소설은 ‘정사’를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이라는 가치로 포장하여 비극적 사실의 자본주의적 상품화에 앞장섰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1923년 기생 강명화의 죽음이었다. 신문 지상을 도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3072).

1 1920년대 ‘정사(情死)’라는 현상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서지영, 「근대적 사랑의 이면: ‘정사(情死)’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9(2010), 297~319쪽.

한 이 비극은 이해조의 『강명화실기』를 필두로 최찬식, 박준표 등에 의해 소설화되어, 실재하는 인물의 죽음을 서사적 상품으로 전유하는 강력한 출판 관행을 만들어 냈다.² 강춘홍, 이화련, 윤심덕 등으로 이어진 ‘정사’의 서사화는 대중이 원하는 낭만적 비극의 전형을 완성해 나갔다.³ 하지만 이처럼 실제 사건을 서사화하는 과정은 타인의 삶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윤리적 결함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문기화』는 1920년대 매체 자본의 상업적 특성과 딱지본 대중소설의 서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유의미한 분석 거점이 된다.

지금까지 『문기화』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을 뿐, 원본 확인이 어려워 실질적인 학술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몇 해 전 한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실물의 존재 여부가 확인된 바 있으나,⁴ 원문 접근이 제한된 탓에 구체적인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최근 한 연

-
- 2 기생 강명화 정사 사건과 그 소설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김경연, 「주변부 여성 서사에 관한 고찰: 이해조의 『강명화전』과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13(2003); 김영애, 「강명화 이야기의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2011); 황지영, 「근대 연애 담론의 양식적 변용과 정치적 재생산: 강명화 소재 텍스트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2011); 이혜숙, 「이해조 소설에 나타난 가정 담론 연구: 홍도화, 산천초목, 여의귀 강명화실기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5(2012); 신현규, 『『女의 鬼 康明花實記 下』(1925) 부록 「妓生의 小傳」 연구」, 『근대서지』 6(2012); 신현규, 「기생 「康春紅小傳」 연구」, 『어문론집』 61(2015); 배정상,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의 모방 양상 연구: 강명화 정사 사건 소재 딱지본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3(2020); 배정상, 「1920년대 소설의 다층적 존재 양상과 의미: 기생 강명화 정사 사건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5(2023).
 - 3 강춘홍과 이화련의 정사는 이해조의 『강명화실기』(경성: 회동서관, 1925) 하편에 부록으로 소개되었고, 윤심덕의 정사는 박준표의 『윤심덕일대기』(경성: 박문서관, 1927)를 통해 소설화되었다.
 - 4 『문기화』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 ‘코베이옥션’에서 2020년 1월 진행한 제241회 ‘삶의흔적’ 경매에 출품된 적이 있다. 이 판본에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에는 없는 문기화의 사진 두 장이 포함되어 있다.

구를 통해 해당 작품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비로소 작품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⁵ 이러한 사료의 발굴은 단순한 문헌적 복원을 넘어, 1920년대 정사 사건의 또 다른 소설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기화』는 1920년대 기생의 정사 사건을 다룬 일련의 딱지본 대중소설과 유사하면서도, 기존의 전형성과는 다른 서사적 분기점을 내포하고 있다. 강명화 계열의 딱지본이 비극의 동인을 가부장적 권위와의 충돌이라는 전근대적 구도 안에서 다루었던 데 비해, 『문기화』는 갈등의 핵심을 본처와의 근대적 삼각관계로 전이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주인공 문기화와 대립하는 본처 이각경(李珪璟)이 ‘한국 최초의 여기자’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지닌 신여성이었다는 점이다.⁶ 이는 특정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생과 신여성이라는 당대 두 여성 주체 간의 대립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1920년대 실제 정사 사건을 다룬 여타 딱지본 대중소설과 구별되는 『문기화』의 차별적 서사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어서 실명 노출과 즉각적 소설화라는 재현 방식이 실존 모델들에게 어떠한 ‘서사적 포획’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새로 발굴한 신문 사료를 통해, 텍스트의 폭력이 그들의 실제 삶에 끼친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기존의 정전(正典) 중심의 논의를 넘어 딱지본 대중소설이 지닌 문학·문화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매체 자본의 상업적

5 홍현성,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옛한글 소설의 자료 현황 연구」, 『동양고전연구』 89(2022), 530~532쪽.

6 정진석, 「자료발굴: 최초의 여기자는 이각경이었다」, 《레이디경향》, 1984년 9월호, 122~125쪽.

속성과 문학적 재현의 윤리적 책임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II. 딱지본 ‘정사’ 소설의 계보와 『문기화』의 서사 전략

1923년 6월 경성의 유명 기생 강명화의 자살 사건은 신문 보도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었다.⁷ ‘취약’을 먹고 사랑하는 남자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선정적인 이야기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약 4개월 뒤 강명화가 사랑했던 남자 장병천이 부친의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극적 파급력을 배가했다.⁸ 특히 그가 강명화와 동일한 수단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은, 이들의 죽음을 숭고한 ‘정사(情死)’로 미화하기 위한 강력한 서사적 동력이 되었다.

이 사건이 내재한 폭발적인 힘을 감지한 신소설 작가 이해조는 『강명화실기(康明花實記)』 상·하편을 차례로 저술·발행했다. 그는 강명화와 장병천은 물론, 기생 강춘홍과 이화련의 자살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소설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였다.⁹ 『강명화실기』는 ‘실기(實記)’라는 제목에서 강조한 바와 같

7 「康明花의 自殺 내막은 매우 복잡」, 《동아일보》, 1923년 6월 15일; 「꽃가튼 몸이 생명을 쓴기까지에 그네의 생활에는 었더한 비밀이 잇섯던가—강명화의 애화」, 《동아일보》, 1923년 6월 16일.

8 「富豪의 獨子 張炳天의 自殺, 작이십구일 새벽 세시에 애인 강명화의 자살할 때와 가치 취잡는 약을 먹고」, 《동아일보》, 1923년 10월 30일; 「愛人の 芳魂을 追跡할 결심으로 경복부호 장길상씨의 장남이 취잡는 약을 먹었다」, 《매일신보》, 1923년 10월 30일; 「張炳天君自殺 취잡는 약을 먹고」, 《조선일보》, 1923년 10월 23일.

9 「기생자살, 정부의 박정과 생활의 곤란으로」, 《동아일보》, 1921년 11월 30일; 「강춘홍의 음독자살, 그 못된 양모의 마귀갓흔 단련으로 히서 이번에 주살혼인가」, 《매일신보》, 1921년 11월 30일; 「美人自殺, 생활곤란으로 목숨은 아즉 살았스나 대기는 구할 수 업다고」, 《매일신보》, 1924년 3월 8일.

이, 실제 있었던 인물과 사건의 기록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¹⁰ 이는 근대소설이 지향하는 ‘현실에 있을 법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인물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신문 기사의 뼈대에 살을 붙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관음적 욕망을 자극하는 상업적 전략이기도 했다.

1925년 7월 17일 당시 주요 신문들은 또 다른 기생의 자살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화계사 승방에서 미기(美妓) 음독자살’, ‘본처의 질투로 남편의 애기(愛妓) 자살’ 등의 제목은 대중들의 이목을 한눈에 끌 만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다.¹¹ 공통된 내용은 기생 문기화(文琦花, 20세)가 애인 전우영(全祐榮, 29세)과 화계사로 놀러 갔다가 그 부인 이각경(李珪璟, 28세)과 크게 다투고 난 뒤, 15일 오전 아홉 시경 아편을 먹고 자살했다는 것이다. 각 기사는 소문이나 추측을 덧붙여 죽음의 원인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우영 역시 남은 아편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다행히 살아났다는 기록도 있고, 문기화가 본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표현도 보인다. 이는 기생 강명화의 정사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또 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 뒤 언론에서는 또 다른 자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¹² 이번에는 문기화의 죽음에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전우영의 부인 이각경이 ‘벨

10 이는 그동안 이해조가 저술한 40여 편의 소설 중에서도 유일한 시도였다.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서울: 소명출판, 2015) 참조.

11 「華溪寺僧坊에서 美妓飲毒自殺」, 《동아일보》, 1925년 7월 17일; 「本妻의 嫉妬로 男便의 愛妓自殺」, 《조선일보》, 1925년 7월 17일; 「美妓含怨自殺」, 《시대일보》, 1925년 7월 17일; 「疑雲에 싸인 奇花의 死」, 《매일신보》, 1925년 7월 17일.

12 「問題의 李珪卿 煩悶스데 遂陰毒」, 《조선일보》, 1925년 7월 29일; 「妾이 自殺한 後 本妻도 飲毒自殺」, 《동아일보》, 1925년 7월 30일; 「男便의 放蕩으로 陰毒한 新女性」, 《매일신보》, 1925년 7월 30일; 「愛妾自殺後本妻陰毒」, 《시대일보》, 1925년 7월 30일.

날트'¹³라는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마포보통학교 교사인 이각경이 삼사 년 전부터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괴로워하다가 문기화의 자살을 계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이 기사의 공통된 내용이었다. 기사는 이각경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을 뿐, 그 이후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이각경은 '한국 최초의 여기자'의 타이틀을 얻은 이 시기 대표적인 신여성이었다. 그녀는 《매일신보》에 여성 최초로 입사하여 활동한 기자였으며, 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다. 그녀의 자살 기도 사건은 기생 문기화의 자살만큼이나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끝같은 사랑에 영원히 잠자는) 문기화』라는 제목의 소설로 출판되었다. 소설 광고에서는 “다정한 미인 문기화의 정화(情話)”, “다한(多恨)한 문기화의 애사(哀史)” 등의 표현을 강조하며, ‘삼각연애’에 빠진 문기화가 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부모의 압박과 사회의 비난을 넘어 오로지 사랑을 위해 살다가 죽은 이야기로 내용을 소개하였다.¹⁴ 또한 부록 「남자의 수절」에 영국의 유명한 문사이자 정치가인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1783~1859)이 죽은 애인을 위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수록했음을 밝혔다.¹⁵ 문기화의 자살 사건은 상업적 출판시장에서 자유연애의 시대에 목숨보다 중요한 사랑,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수절한 한 여인의 서사로 재생산되었다.

『문기화』는 본문 총 143면에 가격은 60전, 1925년 9월 4일 ‘부업세계사(副

13 기사에서 언급되는 ‘벨날트’는 당시 널리 사용되던 바르비투르산계 수면제인 베로날(Veronal)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베로날은 20세기 초 불면증 치료제로 보급되었으나 과량 복용 시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켜 자살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되었다.

14 「문기화(광고)」, 《동아일보》, 1925년 9월 5일.

15 워싱턴 어빙은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외교관이다. 광고에서는 그를 영국인으로 오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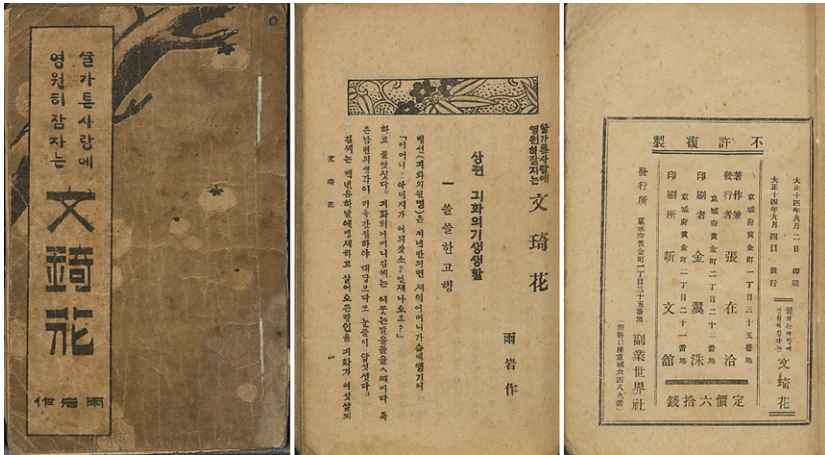


그림1-『문기화』의 표지, 본문, 판권지

業世界社)’에서 발행되었다. 표지와 본문 첫 페이지에 “雨岩 作”이라고 작가의 필명이 적혀 있으며, ‘권두에 한 마디’라는 제목으로 ‘작자의 말’이 실려 있다. ‘우암’이라는 필명이 사용된 또 다른 흔적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어, 저자의 신원은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동아일보》 광고에 “張雨岩”이라는 표기가 등장하고, 판권지의 ‘저작 겸 발행자’가 부업세계사 사주 장재흡(張在洽)임을 감안하면, ‘雨岩’이 장재흡의 아호(雅號)일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¹⁶

장재흡은 1922년 잡지 《신천지(新天地)》 필화사건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인물로, 당시 ‘신천지사’에서 주간 백대진과 함께 영업 및 인쇄를 담당했다.¹⁷ 주간 백대진은 ‘일본위정자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썼다가 신문지법 위

16 저자 규명은 관련 자료의 추가 발굴을 통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 두며, 본 논문에서는 작가를 ‘우암’으로 지칭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17 「雜誌業者를 訊問」, 《동아일보》, 1922년 11월 21일; 「酷禍를 맞는 言論機關」, 《동아일보》, 1922년 11월 24일; 「檢事局大活動」, 《동아일보》, 1922년 12월 2일; 「『新天地』發行」, 《조선

반으로 체포되었고, 이때 인쇄인 장재흡은 함께 체포되어 취조를 받다가 기소유예로 방면된 적이 있었다. 이후 장재흡은 신천지사에서 퇴사하고,¹⁸ 1923년 《조선실업(朝鮮實業)》이라는 잡지를 창간·운영했다.¹⁹ 1925년 6월에는 부업세계사를 설립하고 ‘조선유일의 부업잡지’를 표방하며 《부업세계》를 발행하였다.²⁰ 《부업세계》의 광고에는 부업세계사의 주소가 ‘경성부 황금정 1정목 35번지’로 적혀 있는데, 이는 『문기화』의 판권지에 기재된 장재흡의 주소와도 일치한다. 그는 부업세계사를 운영하며, 『문기화』(1925) 외에도 『최신양돈전서(最新養豚全書)』(1925), 『조선인회사·대상점사전(朝鮮人會社·大商店事典)』(1927) 등 실업 관련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²¹

작가 우암이 직접 작성한 ‘권두에 한 마디’는 이 소설의 재현 의도와 서사적 전략을 예비적으로 선언하고 있다.²² 먼저 작가는 ‘정조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는 선언으로 권두사를 열고 있다. 이는 부록 「남자의 수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생과의 외도와 불륜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조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사건 전체를 도덕적 담론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어 작가는 문기화의 죽음을 ‘돈에 굴복하지 않고 부모의 압박과 사회의 비난을 뚫고 오로지 사랑을 위해 살다가 사랑을 위해 죽은’ 이야기로 제시한다. 이는 독자의 해석 틀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후 본문의 자의적 서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이다. 결국 정조

일보》, 1922년 12월 7일; 「新天地事件起訴」, 《동아일보》, 1922년 12월 9일.

18 「新天地幹部更迭」, 《조선일보》, 1923년 1월 24일.

19 「朝鮮實業創刊」, 《조선일보》, 1923년 9월 20일.

20 「부업세계(광고)」, 《조선일보》, 1925년 6월 13일.

21 부업세계사와 『조선인회사·대상점사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상세하다. 유춘동, 「『조선인회사·대상점사전』에 수록된 1920년대 조선의 출판사와 인쇄소의 실태」, 『어문연구』 182(2019) 참조.

22 우암, 「권두에 한마디」, 『문기화』(경성: 부업세계사, 1925), 1~2쪽.

담론의 전면 배치와 문기화 서사의 의미화라는 두 가지 수사적 전략은, 기생의 정사라는 선정적 소재를 도덕적·문학적 텍스트로 포장함으로써 상업적 출판물로서의 속성을 은폐하는 공통된 목적을 수행한다.

『문기화』는 전체가 장별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그 목차와 개요를 소개하면 <표1>과 같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기화』는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생의 정사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 이를 비극적 사랑 이야기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으로 서술된다는 점에서 강명화 계열 딱지본 대중소설과 유사하다. 다만, 전체의 구성을 상중하로 나누고, 서사의 단락마다 소재목을 붙여 독자의 몰입을 유도한다는 점은 이 작품이 지닌 형식적 차이이다.

또한 부록으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워싱턴 어빙이 죽은 애인을 위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간 일화를 「남자의 수절」이라는 제목으로 삽입한 것도 이 작품의 특징적인 면모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일화는 어빙이 광대의 딸 ‘밀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밀리는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어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 어빙은 이를 그녀가 춤추기를 즐기는 방탕한 성격 때문이라고 오해하며 화를 낸다. 결국 밀리는 집을 떠나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어빙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그녀를 향한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20년대 초반을 휩쓴 강명화 정사 서사는 기본적으로 ‘수직적·봉건적’ 갈등에 기반하고 있다. 『강명화실기』에서 연애의 완성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가부장적 권위를 대변하는 ‘시부모’였다.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는 가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불온한 요소로 규정되며, 주인공의 죽음은 이러한 견고한 신분 질서와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미화된다. 이때 장병천에게 이미 조혼한 아내가 있었음에도 그 아내의 모습이 작품 속에서 철저히 지워져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결국, 남성 주인공은 가문의

표1-『문기화』의 전체 구성과 개요

구분	소제목	개요
상편 기화의 기생생활	1. 쓸쓸한 고향	남편의 죽음과 적막한 고향. 여섯 살 병선(어린 기화)의 등장
	2. 보따리장수	과부 김 씨와 보따리장수 이일순의 관계
	3. 재가할 결심	옆집 노부부의 격려로 김 씨가 재가(再嫁)를 결심
	4. 기화의 위인	모친의 재혼으로 평양 이주 및 기화의 보통학교 입학
	5. 기화의 이상	담임교사의 가정방문. 기화의 꿈은 교사와 외국 유학
	6. 여여뽀이 탈	기생집 주인 송정옥의 기화 미모에 대한 욕심
	7. 소원이 기생	기생을 꿈꾸는 기화와 송정옥의 김 씨 설득
	8. 양모와 이별	기화의 2년간 기생 수업. 송 씨 이주 후 기생 영업 시작
중편 기화의 연애생활	1. 기화의 첫사랑	열다섯 기생 기화, 변호사 박모와의 만남
	2. 기화의 상경	부모와 함께 서울 이주 및 기생 영업
	3. 학생 애인!	포항 갑부의 아들, 의학전문학교 학생 김 씨와의 만남
	4. ‘김’의 짝사랑	학생 ‘김’의 사랑 고백
	5. ‘김’의 연적(戀敵)	광산 사업가 전우영과의 재회. 부인 이각경의 질투와 모욕
	6. 소녀의 설전	‘김’을 선택하라는 모친의 설득. 전우영을 향한 기화의 마음
	7. ‘전’의 성공!	돈보다 사랑, 기화의 전우영 선택
	8. 돈 이천 원!	모친 김 씨, ‘김’에게 받은 돈 이천 원 반환 결심
	9. ‘김’의 방자!	분노와 저주를 담은 ‘김’의 편지
하편 기화의 최후	1. 기화의 강적(強敵)	전우영의 부인 신여성 이각경과 그녀의 질투
	2. 분처의 습래(襲來)	기화의 집 난입. 분처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
	3. 그 이튿날!	화계사까지 쫓아온 이각경과의 물리적 격투
	4. 자살의 서막(序幕)	위스키를 마시고 머리채를 자른 기화
	5. “너 잘 살아라!”	전우영의 품 안에서 아편을 먹은 기화의 최후
(부록) 남자의 수절	1. 남자의 정조	서울구락부 만찬회에서 소개된 워싱턴 어빙과 남자의 정조(貞操) 문제
	2. 명예스런 치욕	키이를 대신해 무대 위에 선 밀리
	3. ‘밀리’의 도망	어빙의 오해와 밀리의 서운함
	4. 가없는 죽음	집을 떠난 밀리의 죽음과 어빙의 수절

전통과 개인의 애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며, 여성 주인공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정절을 입증함으로써 ‘열녀(烈女)’라는 전통적 가치 체계 안으로 포섭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강명화 계열의 소설은 비극의 동인을 가부장적 가족제도라는 외부적 압력에서 찾음으로써, 근대적 연애의 환상을 전근대적 윤리관으로 수렴시키는 서사적 보수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문기화』는 핵심적 갈등의 축이 근대적 삼각관계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게다가 이 작품이 ‘문기화-김 씨-전우영’과 ‘문기화-전우영-이각경’이라는 이중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설정이다. 문기화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현신적인 의학생 김 씨 대신 더 신사적인 매력을 지닌 전우영을 선택한다. 이후 전우영과의 사랑은 질투심 많은 본처 이각경에 의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여주인공 문기화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보수적인 부모의 반대가 아니라, 전우영의 부인인 신여성 이각경이었다.

이러한 갈등 구도는 단순히 서사 형식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강명화 서사가 본처를 지우면서 여성 주체를 ‘열녀’의 틀 안에 포섭했다면, 『문기화』는 기생과 신여성이라는 두 여성 주체를 동일한 남성 욕망의 공간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시킨다. 이로써 전혀 다른 방식의 여성 재현이 등장한다. 일부일처라는 새로운 가족제도가 형성되던 혼란한 시기, 고등교육을 받고 학교 선생으로 재직 중인 신여성 이각경은 남편에게 지극정성이지만 질투심이 강해 외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나아가 그녀는 외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인격적 모멸감은 물론 신체적 폭력까지 가해 문기화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처럼 묘사된다. 이 점에서 『문기화』는 봉건적 갈등 구도를 넘어, 근대적 연애 지형도 안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록으로 삽입된 워싱턴 어빙의 일화는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문기화 서사에 윤리적 권위를 부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작가가 권두언에

서 제시한 ‘정조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는 선언은 부록 전체의 의미화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닌 작가의 일화를 동원하여 ‘정조’와 ‘수절’이라는 전통 가치를 보편적 진리로 격상시키는 한편, 천한 신분인 ‘광대의 딸’ 밀리와 ‘기생’ 문기화 사이의 신분적 유사성을 매개로 ‘문기화-밀리’, ‘전우영-어빙’이라는 대응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따라서 부록의 일화는 문기화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격상하고, 전우영의 외도를 신분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으로 치환하기 위한 서사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서사적 재현의 거리와 은폐된 폭력성

근대적 의미의 문학적 재현이 대상과의 심미적 혹은 비평적 거리 확보를 통해 ‘사실’을 ‘예술’로 승화시키려 한다면, 딱지본 대중소설은 이러한 거리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대중 독자에게 다가서고자 했다. 특히, 『문기화』는 실재하는 인물의 사생활을 서사 내로 포획하기 위해 실명 노출과 즉각적인 서사화, 그리고 자의적 해석 등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실존 인물을 특정 이데올로기적 프레임 안에 고정시키는 이른바 ‘서사적 포획(narrative capture)’의 메커니즘은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비극을 상업적 기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²³

23 본고에서 사용하는 ‘서사적 포획’은 실존 인물의 다층적 삶이 상업적 서사의 단일한 프레임 안으로 편입되어 고착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스튜어트 홀이 지적한 ‘재현의 권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상이 스스로를 정의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타자의 시선에 의해 서사적 기호로 환원·박제되는 폭력적 메커니즘을 함의한다. Stuart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London: Sage, 1997).

딱지본 대중소설 『문기화』는 실존 인물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하여, 그들이 처한 삶의 비극적 순간을 대중적 오락거리로 전락시켰다. 『문기화』에는 문기화(본명 문병선), 전우영, 이각경은 물론 기화의 새아버지 이일순(李一淳), 기화의 학생 시절 담임교사 박문희(朴文姬), 평양의 기생집 주인 송정옥(宋貞玉) 등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신문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의 이름 역시 한자까지 정확히 표기된 것으로 볼 때, 문기화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어 낸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허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강조하여 독자의 신뢰와 몰입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적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품화는 문자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매 기록을 통해 확인된 판본에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에는 없는 문기화의 사진 두 장이 수록되어



그림2-문기화의 사진

있다.²⁴ 죽은 이의 생전 모습을 소설의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비극적 주인공의 죽음을 ‘애도’가 아닌 ‘구경’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장치이다.²⁵ “양장하고 백힌 것”, “최후로 백힌 것”이라는 설명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죽음에 임박한 모습을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그녀의 삶과 죽음을 통째로 볼거리로 만든다. 실명에 더하여 얼굴과 신체까지 출판물에 직접 노출한 것은, 독자의 관음적 욕망을 자극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기획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진 속 인물은 존엄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매체 자본에 의해 전시된 ‘박제된 타자’로 소비되며, 이는 딱지본 대중소설이 지닌 재현의 윤리적 결함을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

동시대 소설에서 이러한 실명 노출은 예술로서의 문학과 자본주의 상품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다. 동일한 실제 사건에서 모티프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문단의 안팎에 있던 작품들은 대체로 인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허구적 창작물임을 명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컨대, 현진건의 「새빨간 웃음」은 강명화 사건에서 모티프를 얻었지만 ‘명화’를 ‘경화’로, ‘병천’을 ‘병일’로 바꾸어 놓았고, 본문 끝에 온전히 작자의 상상력으로 빚은 창작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²⁶ 대중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노자영의 『무한애의 금상』 역시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꾸고 여주인공을 기생이 아닌 여학생으로 설정하였다.²⁷ 하지만 『강명화실기』를 비롯한 딱지본 대중소설들은 예외 없이

24 경매사이트의 위터마크가 사진의 중앙에 찍혀 있으나, 한국국학진흥원 판본에는 누락된 희귀한 자료이므로 있는 그대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25 이는 이미 이해조의 『강명화실기』에서 시도된 상업적 전략을 의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명화실기』 상편에는 강명화, 하편에는 강춘흥, 이화련의 사진이 각각의 이야기 앞부분에 배치되어 독자의 시각적 몰입과 관음적 욕망을 자극하였다.

26 “附記 엇지보면 康明花의 事實을 적은 줄로 아실 것이다. 그 事實에 힌트를 맞기도 하였고 骨子에 類似한 點도 잇지마는, 그것은 枝葉에 근칠 따름이오 온전히 作者의 想像力으로 비저내인 創作品인 것을 言明해둔다”. 빙허, 「새빨간 웃음」, 《개벽》 63(1925. 11), 45쪽.

27 1920년대 문단의 안과 밖, 그 경계에 존재하던 강명화 정사 관련 다층적 문학의 존재 양상

실제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여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다.

『문기화』의 실명 노출 역시 딱지본 대중소설의 상업적 의도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명 재현은 소설을 단순한 허구가 아닌 ‘심층 보도 기사’ 혹은 ‘실시간 중계’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들 작품은 사실에 기반한 소설이지 사실 자체는 아니다.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뼈대에 살을 붙이거나 취재한 소문을 일관된 이야기의 맥락으로 구성하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사실과의 거리가 일정 부분 발생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의도나 해석에 따라 사건은 선택·배치되며, 때로 배제되거나 은폐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독자들은 소설 속의 허구적 묘사를 실제 인물의 행위로 혼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사적 낙인’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피해로 돌아온다.

실명 노출이 실제 인물의 비극을 상품화한 것이라면, 신문 보도와 사건의 소설화 사이의 시간적 인접성은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925년 7월 17일 문기화와 전우영의 정사 사건이 처음 보도된 후, 불과 13일 만인 7월 30일 본처 이각경의 음독자살 기도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인 9월 4일에는 소설이 발행되고 이튿날 신문에는 광고가 게재되기도 했다. 사건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에 소설 출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²⁸ 이러한 ‘시의성’은 이 소설이 문학보다는 신문 기사의 목적과 효용에 크게 기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배정상, 「1920년대 소설의 다층적 존재 양상과 의미: 기생 강명화 정사 사건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5(2023).

28 참고로 『강명화실기』 상편의 경우 강명화 사건의 최초 보도 이후 약 10개월가량의 시차가 있었다.

문학적 재현에는 비극을 내면화하고 성찰하기 위한 일정한 ‘침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기화』는 당사자들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곧바로 서사를 구성해 냈다. 특히 이각경이 생사의 기로에 있던 시간조차 소설의 극적 결말을 위한 소재로 삼아 서사를 완성했다는 점은 딱지본 출판 자본의 비윤리적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삶을 수습하기도 전에 그들의 고통을 대중적 소비의 대상으로 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소설 속 실존 인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자 대중 앞에 진열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신속한 소설화는 당사자들을 전국적 관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재현의 문제에 있어 더욱 주목할 지점은 텍스트 내부에 자의적 해석과 사건 왜곡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우영의 본처 이각경에 대한 작가의 시각과 서술이다. 실존 모델인 이각경은 1920년 《매일신보》에 공채로 입사한 한국 최초의 여기자로서, 입사 시 “남자의 종속적 물건으로 절대복종”하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쓰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던 인물이다.²⁹ 그리고 사건이 있던 1925년 무렵에는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이 시기 대표적인 엘리트 신여성이었다. 하지만 『문기화』는 이러한 사실을 간략하게 언급한 뒤, 그녀의 지적 성취와 사회적 커리어를 철저히 거세한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 온 사회적 명망과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질투에 눈먼 악처’라는 통속적 프레임으로 환원되고 만다.

작가가 이각경의 ‘투기’를 어떻게 서사화하는지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더 명확히 드러난다. 작가는 전우영의 본처 이각경에 대해 남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만큼 충실한 아내였지만, “성격상 큰 결점은 질투심이 보통 여자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투기심은 병적이었다.”라

29 「今回에 本社入社한 婦人記者 李珏環 女史」, 《매일신보》, 1920년 9월 5일.

고 서술하였다.³⁰ 이 서술에서 ‘병적(病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성격 묘사를 넘어 이각경을 비정상적 존재로 규정하는 병리화의 언어이다. 이는 독자들이 이각경을 동정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닌 ‘문제적 타자’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또한 작가는 “전이 하루만 집에 오지 않아도 전의 뒤를 살피거나 곡기를 끊고 자리에 누워 신음하는 여자”이며 “투기에 못 견디 독약을 마신 일도 없지 않았다.”라며 현재의 음독 사건을 이각경이 반복해 온 ‘습관적 행동’의 연장선으로 규정한다.³¹ 이러한 서술 전략은 이각경의 자살 기도가 상황적 절망이 아니라 인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의미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나아가 작가는 남편 전우영의 입을 빌려 “투기 잘하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야단을 쳐서”³²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우영이 조금은 점잖은 편이라면, 문기화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은 더욱더 노골적이다.

글쎄 나으리, 투기도 분수가 있지요. 나를 작첩을 하시었다든지 무슨 깊은 까닭이 있어야 안 합니까? 그리하고 나으리 부인이 하는 말이 ‘이번에 나으리가 집문서를 잡혀 가지고 일본예를 가게 되었는데 너도 그 돈을 먹었겠구나’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하십니다. 나으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나으리에게 무엇을 먹었습니까? 신교육을 받은 부인이라 그런 건지……. 참 큰일 났 여자였어요.³³

문기화의 발언에는 이각경에 대한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문기화는 이각경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인물로 묘사하며, 심지어 전우영이 화가 난 기색을 보이면 으레 부인 탓

30 우암, 『문기화』(경성: 부업세계사, 1925)(이하 『문기화』), 82쪽.

31 『문기화』, 82쪽.

32 『문기화』, 58쪽.

33 『문기화』, 59쪽.

으로 돌리며 이각경을 “강짜도 병”인 “이 세상에 다시없는” 여자로 단정하기도 한다.³⁴ 이러한 장면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발화의 구조이다. 이각경의 언행은 문기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될 뿐이며, 독자는 이각경의 목소리를 이미 피해자로 설정된 문기화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 이각경은 작품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발화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채,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이미지로 고정된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이각경은 ‘죽음으로 사죄해야 마땅한 악처’로 인식되며, 이는 그녀가 겪었을 실제 고통을 서사적 기호 아래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설의 가장 마지막에 작가는 “전은 기화를 장사해 줄 것과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음독(飮毒)한 본처를 치료하기에 바빴었다.”라고 서술했다.³⁵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음독한 본처’라는 표현은 가해와 피해의 인과 관계를 서사적으로 전도한다. 기생과의 외도를 심하게 질투한 본처의 잘못이 더 큰 것처럼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각경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음독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편향적 신문 보도로 인해 절망하여 그런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물론 이것은 당시 신문 보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기사에 보도된 다양한 소문과 추측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그대로 인용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작가는 이각경의 남편을 빼앗긴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실추된 사회적 명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나아가 작가가 가해자인 남성 주인공 전우영을 미화하는 방식도 주목된다. 소설에서 전우영은 일관되게 두 여성의 갈등을 중재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피해자적 위치’에 놓인다. 전우영은 두 여자의 첫 번째 ‘격투’에서

34 『문기화』, 85쪽.

35 『문기화』, 106쪽.

아내 이각경을 ‘간절하게 만류하여’ 집으로 보내고,³⁶ 이튿날 두 번째 화계사 ‘격투’에서는 ‘어디 마음대로 힘껏 싸워 보아라!’라며 방관하다가 결국 아내를 ‘간절히 안심시켜’ 집으로 돌려보낸다.³⁷ 두 여성의 갈등과 고통이 전우영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병적인 질투심에 눈먼 이각경과 그 수모를 참지 못한 문기화에게 전가된다. 소설 결말에서 전우영이 ‘죽은 애인의 장례를 치르고 살아남은 아내를 간호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것은 이 치환의 완성이다. 두 여성을 파멸로 몰아넣은 근본 원인 제공자인 전우영은 이 ‘분주한 치료’의 서사를 통해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받는다. 여성들의 고통은 남성 주인공의 고뇌를 완성하기 위한 배경으로 소모되며, 이러한 남성 중심적 서사 구성은 대중 서사가 지닌 젠더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 결과 소설은 실존 인물의 고통을 서사의 완결성을 위한 소재로 전용하면서, 당사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처럼 선별된 기록과 은폐된 사실은 남겨진 실존 인물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한다. 실명 노출과 극단적 시의성, 이각경의 병리화와 전우영의 면죄로 이어지는 이 재현의 사슬은 텍스트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실명이 노출된 소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당사자들은 정사 사건의 낙인을 피할 길이 없어졌고, 특히, 이각경은 ‘질투에 눈먼 악처’라는 통속적 프레임 속에 갇힌 채 어떠한 변명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나아가 사건이 ‘정사(情死)’의 낭만적 서사로 포장됨으로써 전우영 역시 그 낭만화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후의 삶을 같은 서사 문법 위에서 반복하게 된다. 그 폭력이 실제 삶에 어떤 흔적을 새겼는지는, 이후 수년에 걸쳐 신문 지면에 단편적으로 남겨진 기록들이 증언하고 있다.

36 『문기화』, 87~88쪽.

37 『문기화』, 94~95쪽.

IV. 사회적 낙인과 실존적 파멸

1925년 7월 문기화의 자살 이후 열흘쯤 지난 뒤 이각경이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건을 두고, 당시 언론은 서로 경쟁하듯 그 원인에 관한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 냈다. 남편이 사랑하던 기생 문기화를 투기하여 결국 자살하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변민하였다고,³⁸ 남편이 더욱 타락하여 다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비관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³⁹ 심지어 시아버지가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좋으니 어서 죽어라’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기사도 있었다.⁴⁰ 결국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이각경은 중태에 빠졌고, 이후 그녀의 생존 여부는 신문 지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한 달 뒤 발표된 소설 『문기화』 역시 음독자살 기도 이후 그녀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여기자’ 이각경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리고 그녀의 삶을 추적해 온 언론학자 정진석은 후손의 도움으로 이각경과 전우영의 제적부(除籍簿)를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그들이 각각 1936년 2월 24일, 1936년 8월 12일에 사망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⁴¹ 그에 따르면 1925년 7월 각 언론은 혼수상태인 이각경이 회생할 가망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녀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1936년 2월 24일까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한 192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살 사건 이후 이각경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비운의 존재가 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 1925년 7월 비극적 사건 이후

38 「問題의 李珥卿 煩悶스데 遂陰毒」, 《조선일보》, 1925년 7월 29일.

39 「妾이 自殺한 後 本妻도 飲毒自殺」, 《동아일보》, 1925년 7월 30일.

40 「男便의 放蕩으로 陰毒한 新女性」, 《매일신보》, 1925년 7월 30일.

41 정진석, 「언론사학자 정진석 교수가 추적한 한국 최초 여기자 이각경의 생애」, 《월간조선》, 2002년 12월호.

이각경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본 연구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각경의 행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분상당(身分相當)하던 여자(女子)가 마약(麻藥)에 중독범죄(中毒犯罪)

필경은 죄상이 탄로되어 종로서 유치장 신세

고등교육(高等教育)을 받은 묘령의 여자(女子)가 뜻하지 않은 아편중독(阿片中毒)으로 인(因)하여 일생을 그르친 애화(哀話)가 있다. 시내 낙원동(樂園洞) 일삼사 번지(一三四番地) 전우영(全祐榮)의 처(妻) 이각경(李珏璟, 三二)이라는 여자는 본시 경성(京城) 모(某) 여자고등학교(女子高等學校)를 졸업하고 시내 이삼 보통학교(普通學校)에서 교편(敎鞭)을 잡고 있던 재원(才媛)인데 우연히 배운 아편중독(阿片中毒)으로 인하여 가진 돈을 다 없애고는 할 일 없이 시내 각처로 지기친척(知己親戚)을 찾아다니며 교묘한 말로 혹은 재봉기계(裁縫器械) 혹은 양복(洋服) 등의 물품을 사취하여다가는 닥치는 대로 잡혀서 아편침(阿片針)질을 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어 방금 시내 종로서 사법계에서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로 엄중한 취조를 받는 중인데 그 여자는 유치장(留置場) 속에서도 아편침을 못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목부림을 치므로 취조경관도 자못 그 처지에 곤란을 겪는 중이라 한다.⁴²

위 인용문은 1930년 4월 3일 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인데, 1925년 사건 이후 완전히 몰락해 버린 이각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아편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지인과 친척을 찾아다니며 사기를

42 「身分相當던 女子가 麻藥에 中毒犯罪」, 《매일신보》, 1930년 4월 3일.

치다가 ‘사기취재죄’로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여자와
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로 일하던 재원(才媛)이 아편중독으로 유
치장 신세를 지고, 그 안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몸부림을 친다는 이야기는
당시 이각경의 추락과 파멸의 흔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각경은 불
과 몇 해 뒤인 1936년,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는
그녀의 말년이 상당히 궁핍하고 불우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최초의 여기자’ 이각경, 시대를 앞서가던 당당한 신여성이 아편에 중
독되어 불우하게 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역
사의 이면일 수도 있겠다. 신교육을 받고, 기자 또는 교원으로 근무하며 사회
활동을 하던 이각경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질서와 관습
에 맞서 싸우며 살아갔다. 이각경은 순종하고 인내하기보다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길을 택했으며,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잘난 척하고 질투심 많은 불
량한 여성으로 낙인찍었다. 신문 기사에서도 소설 『문기화』에서도 그녀는 전
우영과 기생 문기화의 아름다운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로 묘사될 뿐,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이각경 개인의 비극을 넘어,
나혜석·김명순 등 시대를 앞서 살다 사회적 낙인과 고립 속에서 쓸쓸하게 생
을 마감한 신여성들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⁴³

제적부에 따르면, 전우영은 1936년 2월 24일 이각경이 사망한 후, 6개월이
지난 8월 12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렇
다면 전우영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다음 기사는 전우영의 말로(未
路)는 물론, 이각경의 마지막을 추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43 나혜석이나 김명순이 가부장적 질서의 외부에서 근대적 주체성을 선언하며 저항하다 낙
인찍혔다면, 이각경은 질서의 내부(본처의 지위)를 고수하려다 오히려 그 질서의 문법(병
적 투기 프레임)에 의해 파멸당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비극적 양상을 보여 준다.

失敗한 光山家 僧坊情死 (未遂)

“몰핀” 中毒, 生命危篤

마흔 살 된 중년 사나이와 스물여섯 살 된 기생이 정은 깊이 들었으나 돈이 없어 정사를 피한 일이 있다. 이렛날 아침 여덟 시쯤 되어 부내 현저정(峴底町) 산 삼 번지의 오호선 바위절(立庵寺)에서 어떤 중년 사나이와 젊은 여자가 자살할 목적으로 “몰핀” 주사를 많은 분량으로 맞고 혼도되어 있는 것을 그 절 중들이 발견하고 곧 이 사실을 소관 서대문서(西大門署)에 알리는 한편 그 이웃 교북정(橋北町) 영천의원(靈泉醫院)으로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하는 중이나 두 남녀가 모두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이들은 현저정(峴底町) 사십육 번지의 칠십구 호 전우영(全祐榮, 四〇)과 익선정(翊善町) 백육십육 번지의 십이 호에 살며 어떤 권변의 기생으로 있는 박화향(朴花香, 二六)으로 전우영이가 광산을 경영하면서 호화스럽게 살던 작년 가을철부터 박화향을 만나 서로 정은 애뜻하게 들었으나 최근에 와서 전이 사업에 실패한 후 박화향의 전차금 육백 원을 물어주어야 빼내 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게 될 것이로되 이것을 짜낼 길이 없어 두 남녀가 모두 비관한 끝에 마침내 자살을 꾀한 것이라 한다.⁴⁴

기사에 따르면 문기화의 애인이자 이각경의 남편인 전우영은 아내가 죽은 뒤 육 개월쯤 뒤인 1936년 8월 7일 젊은 기생 박화향과 함께 다량의 ‘몰핀’ 주사를 맞고 정사(情死)를 시도했다. 전우영의 제적부 사망일이 1936년 8월 12일이니, 그가 정사 사건으로 인해 결국 5일 뒤에 사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또 다른 기생과의 정사를 통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결코

44 「失敗한 光山家 僧坊情死 (未遂)」, 《조선일보》, 1936년 8월 9일.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전우영이 박화향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은 ‘작년 가을’부터 라고 한다. 이는 제적부에 기재된 이각경의 사망일(1936년 2월 24일)로 미루어 볼 때, 이각경이 아직 생존해 있던 시기에 전우영의 외도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의미한다. 이각경의 사인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아 두 사실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 초의 아편중독과 경제적 파탄,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라는 정황을 종합할 때 그녀의 죽음에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내가 죽은 지 여섯 달도 안 되어 다른 기생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꿈꾸었으나 결국 돈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전우영의 말로는, 이각경이 생전에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깊이를 말없이 증언한다.

선정적 사실에 소문을 덧붙여 보도하던 당시의 신문과 또 그러한 속성을 더욱 상업화한 소설 『문기화』의 비윤리적 재현 방식은 결국 남겨진 실존 인물들의 삶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각경은 병적인 질투심으로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악한 본처가 되어 버렸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완벽히 버림받은 채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전우영 역시 낭만화된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배역을 부여받고, 나머지 생을 또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정사’하고 말았다. 이처럼 실제 사실과 재현된 이야기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딱지본 대중소설의 상업적 서사화가 실존 인물들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각경과 전우영의 후일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1920년대 ‘자유연애’라는 새로운 담론의 유행 속에서 ‘정사(情死)’는 ‘목숨

보다 소중한 사랑'을 표상하는 제의적 사건으로 포착되었으며, 이는 서적출판시장에서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기획되었다. 1923년 기생 강명화의 정사 사건이 이해조, 최찬식, 박준표 등에 의해 소설화되었고, 기생 강명화의 이야기는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로 널리 대중에게 소비되었다. 1925년 발행된 『문기화』 역시 실제 있었던 기생의 정사 사건을 소설화한 것으로, 1920년대 정사 소설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계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딱지본 대중소설 『문기화』를 대상으로 삼아, 이 작품이 지닌 서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문기화』는 강명화 계열 딱지본과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그와는 다른 서사적 지형 위에 서 있다. 두 서사 모두 기생의 죽음을 정조와 열녀 같은 보수적 가치 체계로 수렴시킨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강명화 서사가 비극의 동인을 가부장적 권위와의 충돌에서 찾았다면, 『문기화』는 그 갈등의 핵심을 근대적 삼각관계의 내부로 끌어들었다. 강명화 서사에서 철저히 지워졌던 본처의 자리에,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여기자'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가진 신여성 이각경을 강력한 대립 주체로 세워 놓았다. 기생과 신여성이라는 서로 다른 여성 주체가 동일한 남성 욕망의 공간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구도는, 일부일처제가 정착해 가던 과도기의 혼란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권력관계를 날카롭게 포착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기화』의 서사적 새로움은 재현 방식에 있어 강명화 서사와는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문기화』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여과 없이 노출하며,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출판을 강행함으로써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지워 버렸다. '서사적 포획'의 메커니즘은 당사자들이 비극을 수습하기도 전에 그들의 삶을 대중적 소비의 대상으로 박제하였다. 소설 내부에서는 이각경이 '병적 투기'의 악처로 병리화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채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만 규정되었다. 그사이 사건의 근본 원인 제공자인 전우영은 ‘분주한 치료’의 서사를 통해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재현의 폭력은 텍스트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편중독과 사기취재, 이른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각경의 후일담과, 또 다른 기생과의 정사로 생을 마감한 전우영의 말로는, 낭만화된 서사의 이면에서 실제 인간이 어떻게 소진되고 파괴되는지를 뚜렷하게 증언한다.

이처럼 『문기화』는 서사적 구성의 측면에서 강명화 계열 딱지본보다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간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서사적 분기점은 역설적이게도 『문기화』의 대중적 실패와 맞닿아 있다. 강명화 계열의 딱지본이 오랫동안 시대의 스캔들로 기억되며 연이은 출판과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서사가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극을 봉합하고 낭만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억압에 맞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여성이라는 단순하고 강렬한 구도는 독자로 하여금 단일한 감정이입의 대상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비극의 책임은 ‘불건적 질서’로 귀속되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죽음을 통해 숭고한 존재로 미화되었다. 독자는 안전한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사는 그 눈물과 함께 소비되었다.

반면 『문기화』는 그 단순한 위안을 허락하지 않았다. 본처를 악인으로 내세우면서도 그녀가 촉망받는 신여성이라는 사실을 지우지 못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단일한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문기화에게 공감하자니 이각경의 고통이 눈에 밟히고, 이각경을 이해하자니 서사의 문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였다. 대중 서사가 요구하는 감정적 단순성과 명확한 선악의 구도를 『문기화』는 끝내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독자의 외면 속에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강명화의 이야기는 낭만화된 서사의 문법 위에서 오래 기억되었고, 문기화의 이야기는 그 문법에 균열을 낸 탓에 결국 잊히고 말았다. 그러나 바로 그 균열의 자리에, 이 시대의 서사가 외

면하고자 했던 불편한 진실이 놓여 있다.

다만, 『문기화』의 대중적 실패를 단순히 서사 구조의 복잡성이나 감정이입의 부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당시 딱지본 시장은 영창서관이나 박문서관 같은 대형 출판사와 이해조, 최찬식, 박준표 등 유명 작가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부업세계사라는 비전문적 소규모 출판사의 한계와 발행인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텍스트의 조잡함은 『강명화실기』와 같은 광범위한 유통망과 독자층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문기화』는 기존 정사 소설과는 차별화되는 서사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출판 자본의 영세성과 작가적 권위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문학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다.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서사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들의 삶에 새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이다. 이각경과 전우영의 비극적 후일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이각경은 신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본처라는 구조적 위치 사이에서 분열된 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온전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병리적 타자’로 낙인찍히며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 전우영 역시 낭만화된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배역을 부여받은 채 이후의 삶을 같은 서사 문법 위에서 반복하다 결국 또 다른 정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서사가 인간을 포획하고, 포획된 인간이 그 서사를 반복하는 이 비극적 순환은, 재현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고 때로는 삶을 파괴하는 권력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이러한 재현의 문제는 1920년대의 특수한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존 인물의 사생활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사화되고, 자극적인 프레임 안에서 소비되는 양상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아카이브적 속성은 유통된 서사를 영구히 고착시킴으로써 실존 인물을 왜곡된 서사 내에 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점

에서 오랫동안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던 『문기화』에 대한 고찰은, 재현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소비해 왔는가를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박준표, 『윤심덕일대기』, 경성: 박문서관, 1927.
박준표, 『(질세미인)강명화의 설음』, 경성: 영창서관, 1928.
우암, 『문기화』, 경성: 부업세계사, 1925.
이해조, 『강명화실기』, 경성: 회동서관, 1925.
최찬식, 『(신소설)강명화전』, 경성: 박문서관, 1925.
춘파, 『(실정애화)미인의 정사』, 경성: 영창서관, 1933.
빙허, 「새빨간 웃음」, 《개벽》 63, 1925. 11.

2. 논저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연, 「주변부 여성 서사에 관한 고찰: 이해조의 『강명화전』과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13, 2003, 1~18쪽.
김영애, 「강명화 이야기의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2011, 83~102쪽.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 소명출판, 2015.
배정상,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의 모방 양상 연구: 강명화 정사 사건 소재 딱지본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3, 2020, 147~176쪽.
배정상, 「1920년대 소설의 다층적 존재 양상과 의미: 기생 강명화 정사 사건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5, 2023, 329~351쪽.
서지영, 「근대적 사랑의 이면: ‘정사(情死)’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9, 2010, 297~319쪽.
신현규, 「『女의 鬼 康明花實記 下』(1925) 부록 「妓生의 小傳」 연구」, 『근대서지』 6, 2012, 464~481쪽.
신현규, 「기생 『康春紅小傳』 연구」, 『어문론집』 61, 2015, 227~250쪽.
유춘동, 「『조선인회사·대상점사전』에 수록된 1920년대 조선의 출판사와 인쇄소의 실태」, 『어문연구』 182, 2019, 103~123쪽.
이혜숙, 「이해조 소설에 나타난 가정 담론 연구: 흥도화, 산천초목, 여의귀 강명화실기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5, 2012, 187~212쪽.

정진석, 『인물한국언론사: 한국언론을 움직인 사람들』, 서울: 나남출판, 1995.

홍현성,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옛한글 소설의 자료 현황 연구」, 『동양고전연구』 89, 2022, 515~546쪽.

황지영, 「근대 연애 담론의 양식적 변용과 정치적 재생산: 강명화 소재 텍스트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2011, 505~536쪽.

Hall, Stuart(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1997.

3. 기타

정진석, 「자료발굴: 최초의 여기자는 이각경이었다」, 《레이디경향》, 1984년 9월호, 122~125쪽.

정진석, 「언론사학자 정진석 교수가 추적한 한국 최초 여기자 이각경의 생애」, 《월간조선》, 2002년 12월호.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딱지본 대중소설 『문기화』(부업세계사, 1925)를 대상으로, 이 작품이 지닌 서사적 특성과 재현의 폭력성을 다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1925년 기생 문기화의 정사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1923년 강명화 정사 사건을 다룬 일련의 딱지본 대중소설과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인 서사적 특성을 지닌다. 강명화 계열의 딱지본이 가부장적 권위와의 충돌을 비극의 동인으로 삼았다면, 『문기화』는 갈등의 축을 근대적 삼각관계의 내부로 끌어들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기자’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지닌 신여성 이각경을 대립 주체로 내세워, 기생과 신여성이라는 두 근대적 여성 주체의 충돌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출판을 강행하는 등, ‘서사적 포획’의 메커니즘을 통해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비극을 상업적 기호로 전락시켰다. 소설 내부에서는 이각경이 ‘병적 투기’의 악처로 병리화되는 동안 가해자인 전우영은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받는 남성 중심적 서사가 관찰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새롭게 발굴한 신문 사료를 통해, 이러한 재현의 폭력이 실존 인물들의 삶에 새긴 파멸의 궤적을 실증적으로 추적하였다. 이각경의 아편중독과 비극적 죽음, 전우영의 또 다른 정사라는 후일담은 낭만화된 서사의 이면에서 실제 인간이 어떻게 소진되고 파괴되는지를 증언한다. 이 연구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문학·문화사적 특성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체 자본의 상업적 속성과 문학적 재현의 윤리적 책임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투고일 2026. 4. 4.

심사일 2026. 5. 1.

게재 확정일 2026. 5. 26.

주제어(keywords) 문기화(Mun Gi-hwa), 기생(妓生, gisaeng), 딱지본 대중소설(*ttakjibon* popular novel), 정사(情死, love-suicide), 이각경(Yi Gak-gyeong)

Abstract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and the Ethics of Representation in “Lovers’ Suicide” Narratives in the 1920s: Focusing on the *Ttakjibon* Popular Novel *Mun Gi-hwa* and the Later Stories of Its Real-Life Models

Bae, Jeongsang

This paper analyzes *Mun Gi-hwa* (副業世界社, 1925), a *ttakjibon* popular novel (an inexpensive form of popular fiction produced for mass consumption in colonial Korea) that has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to date. It examines the novel’s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violence embedded in its mode of representation. Based on the 1925 lovers’ suicide (情死) incident involving Mun Gi-hwa, a gisaeng (妓生), this novel shares certain features with the series of *ttakjibon* popular novels inspired by the Kang Myeong-hwa incident of 1923, while also diverging from their conventions in significant ways. Whereas narratives surrounding Kang Myeong-hwa locate the source of tragedy in conflicts with patriarchal authority, *Mun Gi-hwa* shifts the axis of conflict to the interior dynamics of a modern love triangle, positioning Yi Gak-gyeong—a New Woman known as “Korea’s first female journalist”—as a central antagonist. The novel’s unfiltered use of real names and its publication only one month after the incident exemplify a mechanism of “narrative capture” that transformed real individuals’ tragedies into commercial spectacle. Yi Gak-gyeong is pathologized as a jealousy-driven villainess, while Jeon U-yeong, the actual perpetrator, is absolved through a male-centered narrative logic. Drawing on newly discovered newspaper sources, this study traces the devastating afterlives of those involved, including Yi Gak-gyeong’s opium addiction and early death, and Jeon U-yeong’s death in another lovers’ suicide. This study thus illuminates the literary and cultural–historical significance of *ttakjibon* popular novels while also encouraging reflection on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media representation.